

## 장애인의 재활보조기구 활용실태와 정책과제

### Assistive Devices for the Disabled in Korea: Current Status and Policy Implications

#### 1. 머리말

장애인에 있어 재활보조기구<sup>1)</sup>는 신체적 기능상의 장애를 경감·완화시켜줌으로써 교육적, 직업적, 사회적 재활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가능케 하여주는 필수요소로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통합과 자립의 기회를 넓혀주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2005년에는 214만 8천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4.59%가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장애인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장애인구의 증가에 따라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재활보조기구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장애인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보조공학에 대한 인식도 과거에 비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전동휠체어 건강보험의 급여 등 보험급여 품

1) 재활보조기구는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과 보완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장애인복지법 제55조).



권 선 진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목의 확대 등에 따라 앞으로도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97년부터 실시한 재활보조기구 건강보험 급여적용 대상품목은 2006년 현재 지팡이, 목발, 휠체어, 의지·보조기, 시각장애용 저시력보조기(안경, 렌즈, 의안 등), 흰지팡이,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와 함께 2005년부터 포함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 구두 등으로 매년 확대되어 왔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의 재활보조기구 수요에도 불구하고 재활보조기구의 공급 여건은 충분히 만족할 만큼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999년의 '장애인복지법'에서 '의지·보조기 기사'에 대한 국가시험 규정을 두어 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재활보조기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등에 있어서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장애인구의 증가, 보조공학의 첨단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으로 재활보조기구 산업의 육성도 필요해지고 있으나 아직도 산업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개별 업체들은 영세하며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실정으로 장애인들의 재활보조기구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의 경우 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등과 함께 재활보조기구를 복지용품 산업으로서 21세기 전략산업화 하고 있으며, 수요에 따른 보급 방안과 함께 전반적인 산업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다.

장애 인구규모가 크고 인구고령화가 앞서 진행된 국가들은 진정한 의미의 통합과 자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장애인의 욕구에 대응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장애인의 재활보조기구 사용실태와 욕구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는 2005년도에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재활보조기구 활용실태를 파악해 보고, 이 결과를 이전의 조사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재활보조기구의 보급실태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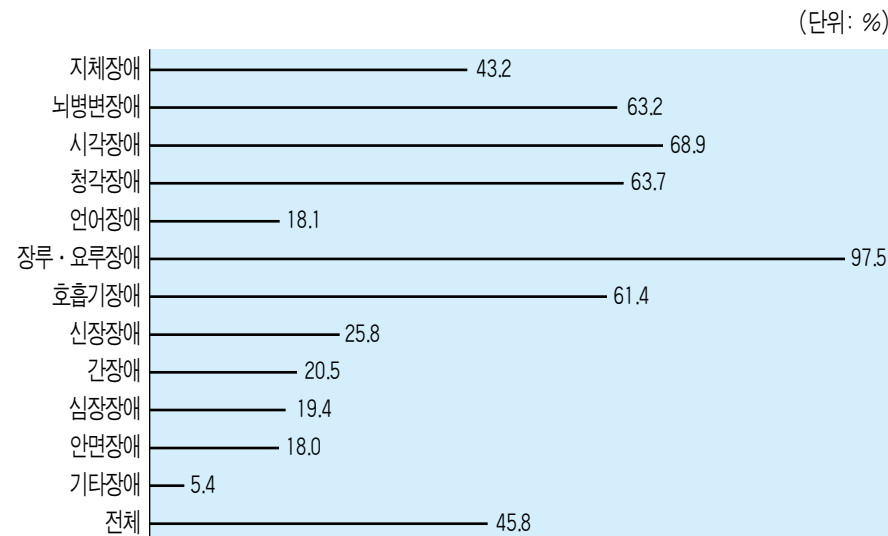
#### 2. 재활보조기구 사용 실태

우리나라 장애인의 재활보조기구 소지실태를 2005년도 실태조사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005년도의 조사에서는 재가장애인의 재활보조기구를 보다 세분해서 조사하였으며 2000년도 실태조사와 달리 장애유형에 있어서도 지체, 시각, 청

각, 언어장애 외에도 신장장애(복막투석기), 호흡기장애(산소호흡기), 안면장애(압력웃), 장루·요루장애(장루주머니)가 추가되었으며 재활보조기구의 종류도 총 48종으로 5년 전의 22종보다 확대되었다. 장애인들의 재활보조기구 소지율을 알아보면, 전체 장애인 가운데 45.8%가 재활보조기구를 소지하여 5년전에 비해 약 6.2%p 높아졌으며, 인구수로는 약 39만명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범주 확대로 장애인이 늘어난 것과 함께 조사항목에 포함된 재활보조기구의 종류가 크게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다.

장애유형에 따른 재활보조기구 소지율을 비교해 보면, 장애특성 상 장루·요루장애가 재활보조기구 소지율이 가장 높아 9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각장애는 68.9%, 청각장애는 63.7%, 뇌병변장애 63.2%, 호흡기장애 61.4%로 높게 나타났다. 2000년과 비교하면 새로 추가된 장애를 제외하고 소지율이 고르게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2003년부터 2단계로 확대된 장애 가운데는 장루·요루장애, 호흡기장애인의 재활보조기구 소지율이 높고, 언어장애를 포함해서 기존의 다른 장애는 대체로 비슷한 소지율을 보이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재가장애인의 재활보조기구 소지율



재활보조기구를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현재 소지하고 있는 재활보조기구의 종류를 살펴보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지체장애이용 재활보조기구의

경우에는 주로 지팡이가 가장 많아 21.0%이며, 다음으로는 보조기(척추, 상·하지) 10.5%, 목발 9.7%, 의지(상·하지) 4.2%, 수동휠체어 4.0%이며, 최근 보급이 늘고 있는 전동휠체어를 소지한 장애인은 0.9%로 약 1만 2천여명으로 추정된다. 이 결과는 2000년도 조사에 비해서 개별품목의 소지율이 다소 감소하였는데 지체와 뇌병변장애인이 함께 조사되어 분모가 크게 늘어난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전동휠체어의 보급이 늘어났지만 실제 사용하는 장애인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시각장애인용 재활보조기구 가운데는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안경이 51.0%의 소지율을 보였으며, 그 외에는 의안(義眼) 13.2%, 흰지팡이 5.9%의 순이었다. 5년전에 비해 흰지팡이의 비중이 감소하고 의안이 크게 늘어난 것은 한쪽 눈 실명자가 2000년부터 장애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편 청각장애인용 재활보조기구에 있어서는 보청기가 59.7%를 차지하여 5년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그 외에 새로 포함된 TV 자막수신기, 화상전화기 등의 품목은 비중이 매우 적었다.

표 1. 재가장애인의 소지 재활보조기구 종류

(단위: %, 명)

구분	소지 재활보조기구	비율	구분	소지 재활보조기구	비율
지체장애용 및 뇌병변 장애용	상지의지	2.2	청각장애용	보청기	59.7
	하지의지	2.0		화상전화기	0.3
	척추보조기	6.6		골도전화기	0.7
	상지보조기	0.8		문자전화기	0.5
	하지보조기	3.1		문자송수신기	0.5
	정형외과용 구두	1.2		음성증폭기	0.5
	지팡이	21.0		인공와우	0.3
	목발	9.7		TV 자막수신기	2.8
	보행기	2.2		기타	0.5
	자세보조기구	1.0			(224,091)
언어장애용	전동휠체어	0.9	인공후두	2.9	
	수동휠체어	4.0	기타	0.0	
	전동스쿠터	0.8		(14,938)	
	기타	3.3	신장장애용	복막투석기구	13.1
	(969,484)	기타		1.2	
				(33,435)	

<표 1> 계속

구분	소지 재활보조기구	비율	구분	소지 재활보조기구	비율
시각장애용	안경(콘택트렌즈)	51.0	호흡기 장애용	산소호흡기	22.7
	저시력보조기	4.3		기타	40.7
	흰지팡이	5.9	장루·요루 장애용	장루주머니	93.9
	의안	13.2		피부보호관	75.4
	스크린리더	0.4		기타	18.6
	화면확대기	1.6	기타	용창방지용매트	1.7
	휴대용점자정보단말기	0.2		기저귀매트	1.9
	음성손목/탁상시계	3.5		목욕용 의자	0.7
	안내견	0.0		기타	1.6
	기타	4.7		계	(1,301,243)
		(214,096)			

주: 복수응답 비율이며, ( )는 전국추정수임.

언어장애인용 재활보조기구인 인공후두는 2.9%로 2000년보다 증가하였으며, 신장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투석을 받고 있지만 투석기를 소지하고 있는 비율은 13.1%였다. 이와 함께 호흡기장애의 경우에는 산소호흡기가 22.7%이지만 기타의 보장구를 사용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리고 장루·요루장애의 경우에는 장루주머니를 사용하는 경우가 93.9%로 대부분 이 기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피부보호관의 경우 75.4%로 높은 비율이었다.

재활보조기구 소지율을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재활보조기구 소지율도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절반 이상, 70대 이상에서는 2/3 이상이 재활보조기구를 소지하고 있어 연령이 증가할수록 재활보조기구의 필요도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장애인의 연령별 재활보조기구 소지율

(단위: 명, %)

구분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961,888)	22.4	26.2	29.9	32.1	40.6	52.4	71.7

주: 비례당 및 무응답 제외, ( )는 전국추정수임.

### 3. 재활보조기구 활용 정도

현재 재활보조기구를 소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보조기구를 어느 정도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매우 자주 사용한다'가 55.2%,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는 16.8%로 전체적으로 72% 정도의 장애인이 재활보조기구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재활보조기구를 갖고 있으면서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전체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재활보조기구 소지율이 높은 장애인 장루·요루장애(90.7%)를 비롯하여, 호흡기장애, 신장장애, 시각장애가 활용율이 높았고, 그밖에는 청각, 뇌병변, 지체장애의 순으로 활용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재활보조기구 소지율과 달리 활용정도는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0년도 조사와 비교해 거의 동일한 활용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3. 장애인의 재활보조기구 활용정도

(단위: 명, %)

구분	매우 자주 사용	자주 사용하는 편	자주 사용 안함	거의 사용 안함
계(963,034)	55.2	16.8	12.5	15.5

주: 비례당 및 무응답 제외, ( )는 전국추정수임.

재활보조기구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장애인에 대해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사용이 번거로워서'가 34.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25.7%, '별 효과가 없어서' 22.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체로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크다는 점과 함께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이 많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지하고는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대상 가운데는 활동성이 적은 고령장애인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에 비해 큰 차이는 없었다.

표 4. 재활보조기구 사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용이 번거로워	미관상 흉해서	별효과가 없어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기타
계(268,828)	34.0	11.6	22.7	25.7	5.9

주: 비례당 및 무응답 제외, ( )는 전국추정수임.

#### 4. 재활보조기구 수요

일반적으로 재활보조기구를 필요로 하지만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2000년도의 조사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건강보험 급여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과거에 비해 재활보조기구의 구입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었다고 하나 질 좋은 재활보조기구는 대부분 고가이고 보험급여 단가가 낮기 때문에 장애인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으며, 일반인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들의 경우 구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본 조사에서는 2000년도와 달리 재활보조기구의 소지여부 및 필요여부를 동일한 집단에 대해 질문하여 5년 전에 비해 필요 보조기구가 다소 낮은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다. 즉, 2000년에는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장애인(89%)을 별도로 분리하여 수요를 추정하였으나 2005년도 조사에서는 두 집단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재활보조기구를 소지한 장애인의 경우 필요로 하는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응답도 비슷한 비율로 조사되었다.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장애유형별 수요에 있어서는 소지 현황에서와 같이, 장루·요루장애, 호흡기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등의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필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세분해 보면, 지체와 뇌병변장애에 있어서는 지팡이, 목발, 척추보조기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등의 순으로 높았다. 2000년도에 비해 특징적인 것은 전동휠체어에 대한 수요가 낮아졌는데 그 이유는 지난 5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실시한 전동휠체어 보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건강보험 급여가 실시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약 4만 9천여명 정도가 전동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각장애인용 재활보조기구의 경우에는 안경이 53.4%로 가장 높았으며, 의안의

경우도 14.4%로 높은 필요도를 보이고 있다. 청각장애인용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재활보조기구라 할 수 있는 보청기에 대한 요구가 압도적으로 높아 71.8%를 보이고 있으며, 신장장애인용 재활보조기구의 경우에는 복막투석기구가 13.2%, 호흡기 장애인용 보조기구로는 산소호흡기 46.7%, 장루·요루장애에 있어서는 장루주머니

표 5. 재가장애인의 필요 재활보조기구 종류

(단위: %, 명)

구분	필요 재활보조기구	비율	구분	필요 재활보조기구	비율
지체장애용 및 뇌병변 장애용	상지의지	2.3	청각장애용	보청기	71.8
	하지의지	2.0		화상전화기	5.0
	척추보조기	6.4		골도전화기	2.5
	상지보조기	0.9		문자전화기	6.4
	하지보조기	2.9		문자송수신기	1.9
	정형외과용 구두	3.2		음성증폭기	2.4
	지팡이	20.6		인공와우	3.4
	목발	7.3		TV 자막수신기	10.0
	보행기	2.7		기타	0.9
	자세보조기구	1.7			(224,481)
시각장애용	전동휠체어	3.2	언어장애용	인공후두	5.5
	수동휠체어	4.7		기타	0.0
	전동스쿠터	2.7		(14,938)	
	기타	3.9	신장장애용	복막투석기구	13.2
		(969,073)		기타	1.2
				(33,435)	
		호흡기 장애용	산소호흡기	46.7	
			기타	43.3	
			(28,100)		
		장루·요루 장애용	장루주머니	93.9	
			피부보호관	81.3	
			기타	18.6	
			(14,634)		
		기타	용창방지용매트	2.7	
			기저귀매트	2.8	
			목욕용 의자	2.8	
			기타	1.9	
			(215,679)		
		계		(1,300,497)	

주: 복수응답 비율이며, ( )는 전국추정수임.

자가 93.9%, 피부보호관 81.3%로 나타났다. 기타 품목으로 기저귀매트, 목욕용 의자, 욕창방지용 매트 등 많지 않았다.

필요한 재활보조기구가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 중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한 결과 다음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입비용 때문에'가 2/3 이상을 차지하여 경제적 부담이 가장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그 밖의 이유로는 '나에게 적합한 재활보조기구를 선택하지 못해서' 6.7%, '사용이 불편하여' 5.8%, '미관상 흉해서' 5.6%, '구입처를 몰라서' 5.6% 등의 순으로 나머지 이유는 대체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며, 2000년과 비교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장애인이 재활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비교적 고가인 재활보조기구 구입에 따르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구입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젊은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재활보조기구 지원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점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표 6. 필요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구분	구입 비용 때문	적합한 재활보조기구가 없어서	사용하기 불편	구입처 몰라서	미관상 흉해서	효과가 없어서	구입시간이 없어서	기타
계 (356,535)	68.3	6.7	5.8	5.6	5.6	4.0	1.5	2.6

주: 비례당 및 무응답 제외, ( )는 전국추정수입.

## 5.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보급 활성화를 위한 과제

### 1) 재활보조기구 수급관련 통계생산

2005년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은 전체 추정장애인의(약 214만명) 45.8%에 이르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재활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인구는 전체 장애인의 1/2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 또한 앞으로 고령자와 장애인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활보조기구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재활보조기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용품의 수요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수요와 공급의 예측이 요망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활보조기구 산업 및 재활보조기구와 관련하여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는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재활보조기구 소지율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인구고령화에 따라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재활보조기구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장애의 경향이 점차 중증·중복화 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중복장애는 전체의 약 19.1%), 재활보조기구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5년도 조사에서 재활보조기구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최소 70만명 정도의 추가수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를 가진 요보호 대상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드러난 수요 및 잠재된 수요와 산업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고 발전에 필요한 인력, 정보,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재활보조기구 사용실태 및 수요, 그리고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보훈처 등 지급실적 등에 관한 통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2) 장애유형별 재활보조기구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장애인들이 재활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나 구입을 하지 못하거나 교체를 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대부분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무리 좋은 첨단 제품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구매력이 낮은 장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미국, EU 등을 비롯한 선진 외국의 경우 본인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소득이 낮은 장애인들에게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우리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제도의 실시를 통해 장애인의 재활보조기구 구입 부담을 줄여주고 있으나 비급여 품목이 많고 수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 품목이 많아 부담이 큰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욕구가 높은 전동휠체어와 같은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품목의 확대가 요구되며, 장애범주에 새롭게 포함된 장루장애, 호흡기장애와 같이 장애인의 의료적 요구가 큰 품목부터 늘려가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급여 기준가격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유효수요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3) 관련 법·제도의 확립

재활보조기구가 장애인에 보급되고 산업화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이 필요하고 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포함되어 있는 조항으로는 장기적으로 산업으로 육성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다양한 제품에 대한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재활보조기구 관련 법체계를 마련하여 하나의 제품으로서 재활보조기구가 장애인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고가의 외국 제품을 수입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수출을 늘려갈 수 있어야 한다. 산업화를 위해서는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시험 및 검사제도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인력 측면에서는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자격기준과 양성과정의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현재의 관련협회의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다른 업종과의 교류를 통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할 것이다.

### 4) 연구개발 촉진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재활보조기구의 활용도가 낮은 원인에는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앞으로는 이용하기에 편리한 질 높은 재활보조기구 즉, ADL과 같은 의료적 중심의 재활보조기구에서 전동휠체어, 음성시계, TV 자막수신기와 같이 '삶의 질'과 관련 있는 재활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지자체나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서 재활공학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기존의 국립재활원, 재활공학연구소 등과 같이 제품개발의 능력이 있는 재활공학센터의 설치를 촉진하고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개발된 제품의 전시, 판매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홍보를 확대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고 잠재적인 수요를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 5) 복지용품 산업의 육성

장애인에 보다 질 높은 재활보조기구가 보급됨으로써 사회통합과 자립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재활보조기구 산업이 발전되어야 한다. 우리의 경우 전동휠체어 등 고가의 상품성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세하고 재활보조기구의 종류와 질적인 수준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재활보조기구가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업계 전체적으로 품목에 대한 표준화가 시급하고, 정보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재활보조기구 구입에 따른 지원 시책과 함께 산업육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산업화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부처간 협력과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즉 현재의 보건복지부 중심에서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개입도 요청된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 전략산업으로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6. 맺음말

장애인의 재활에 필수적인 재활보조기구는 장애범주 확대에 따른 법정 장애인의 증가, 고령장애인의 증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운동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조공학의 발전 및 새로운 소재와 기술 개발 등으로 인해 재활보조기구의 잠재적 수요도 크게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구 선진국을 비롯하여 일본만 하더라도 기술력과 자본투자를 바탕으로 미래의 전략산업으로서 재활보조기구 또는 복지용품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장애인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보급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재활보조기구의 정확한 수요예측과 함께 보조공학 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등 중·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장애인에 있어 재활보조기구는 의료, 교육, 직업재활의 핵심적 도구이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갖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재활보조기구의 지원이 확대되어 오긴 했으나 소득수준과 구매력이 낮은 실정에서 재활보조기구의 보급을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

현재 우리의 재활보조기구 관련 산업은 전반적으로 영세하고 장애인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지원정책도 불충분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수요전망에 비추어 볼 때, 법 및 제도의 정비, 관련 전문인력 및 산업의 육성은 매우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하겠다.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는 전략산업으로서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재활보조기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 기기나 직업생활을 하는 장애인들에 적합한 작업기기를 개발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결국 장애인의 재활에 필요한 재활보조기구의 보급을 늘리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나 기업, 보장구업체, 재활공학자를 비롯한 전문가, 소비자인 장애인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망된다. 